

인구 고령화 속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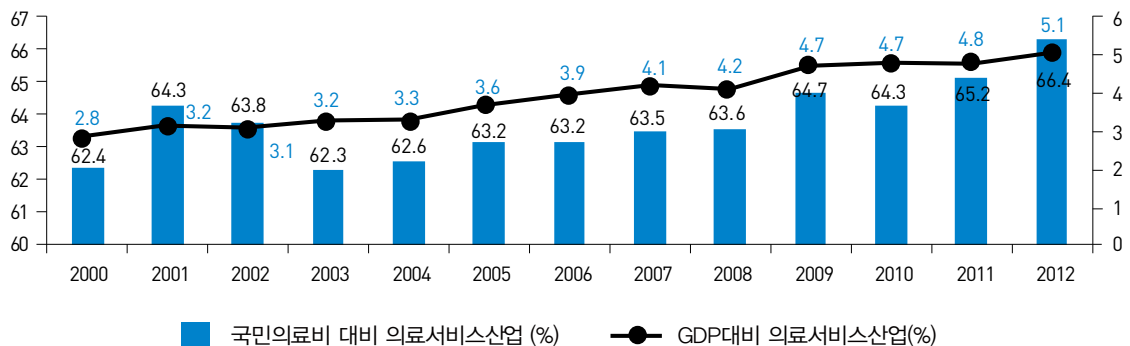
미래성장산업 중요성 재인식 ...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확대정책은 긍정적 효과 거둬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 박재산 · 황준원 · 김은영 · 윤영규

의료서비스산업의 현 좌표 및 최근 동향

의료서비스산업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은 IT산업, BT산업과 융합함으로써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 규모¹⁾는 2012년 기준 약 64.5조원으로 반면 국민의료비의 66.4%에 해당하며, GDP의 5.1%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국민의료비의 증가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1990년 GDP의 2.5%수준이던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는 2012년 5.1%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향후 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에의 기여정도 역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1) 국민의료비의 개인보건의료비 중 의료용품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정의함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를 구성하는 의료서비스자원 및 의료이용 역시 지난 10년간 성장을 지속해 왔다. 주요 의료 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의료기관수, 병상수, 고가의료장비 등은 OECD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성기 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수는 60,899개소(2013년)로 2003년에 비해 약 1.3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 이후 요양병원의 개설증가로 인해 가속화 되어 2003년 68개에 불과하던 요양병원이 2013년 1,228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장기요양 병상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보건의료 이용에 있어서는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이후 건강보험 적용인구 증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은 의료이용의 증가와 미충족 의료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국민 1인당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횟수는 14.3 회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반면 높은 재원일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과 의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의료서비스자원의 증대 및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이용의 접근성 향상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가져왔다. 2000년대 초반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던 기대수명, 조기사망(PYLL), 영아사망률 등의 주요 건강지표가 현재는 OECD 평균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표 1〉 의료서비스 관련 주요 지표

구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입원진료 병상수(장기요양, 65세이상 인구 천명당)	3.5('11)	3.0	-	11.1	27.4	-	0.7('10)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7.9('11)	6.7	9.7	13('11)	14.3	5('09)	4('10)
임상외사(인구 천명당)	25	3.1	4.0	2.3	2.1	2.8	2.5('11)
영아사망률 출생아 천명당, 명)	4.8('11)	3.5	3.3	2.2	2.9	4.1	6.1('11)
기대 수명(세)	81.5('11)	82.1	81.0	83.2	81.3	81.0	78.7('11)

자료: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OECD Health Data(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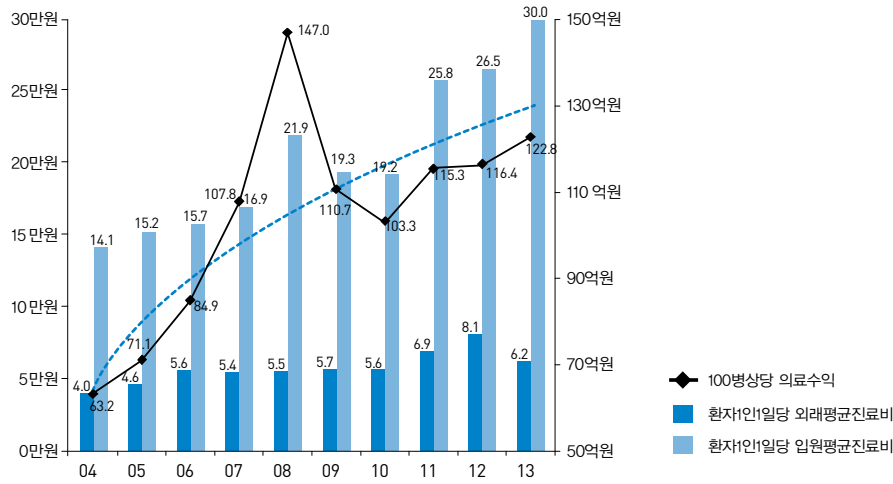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자원과 의료서비스이용, 그리고 건강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건 의료 자원공급은 병상과 병원, 고가의료장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해 의료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등은 의료서비스자원의 공급확대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의 접근성 향상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국내 의료기관의 경영현황 및 성과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 통계분석과 함께 국내 의료기관의 경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보험급여에서 외래 25%, 입원의 90%까지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병원은 많은 부분 의원에

서 자본을 축적하여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자본구조에 있어 영세성을 갖고 있고, 의료시장 개방, 병원 기능의 다변화, 병원간 경쟁심화 등 의료기관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병원의 경영 성과는 격차가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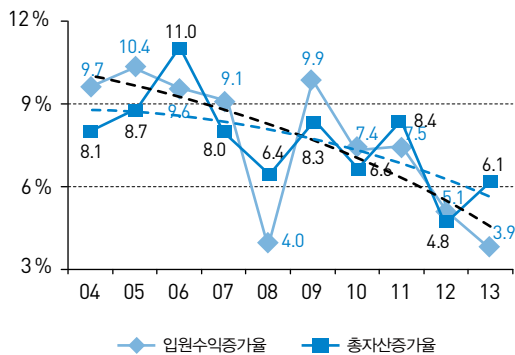
본 기고에서는 최근 10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 경영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는데 연도별 병원경영분석²⁾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하 본문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균값을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의료수익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2013년도 100병상당 의료수익 평균은 약 123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7.7%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환자들의 평균진료비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4년 1인 1일당 입원·외래 평균진료비는 각각 14만원, 4만원에서 2013년도에 입원은 약 30만원(연평균 8.7% 증가), 외래는 약 6만원(연평균 5.0% 증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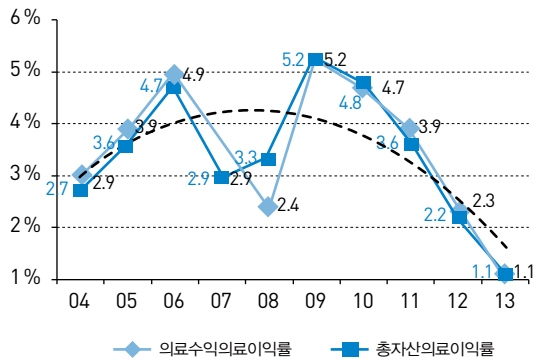
[그림 2] 의료수익 및 진료비 추이

매년 의료수익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의 성장성 지표 수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 중 입원수익 증가율은 2004년부터 연평균 9.6%씩 감소하는 추세로 2013년도 입원수익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1.2%p 감소한 3.9%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도 총자산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2.3%p 상승한 6.1%이지만 2004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3.1%씩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2004년부터 변동적(fluctuation) 추세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2013년도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전년도 대비 1.2%p 감소한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지표는 병원의 진료에 의한 수익구조에 한정되어 산출되는데, 병원의 진료수익 구조만으로 경영상태 및 성장기전을 따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2013 병원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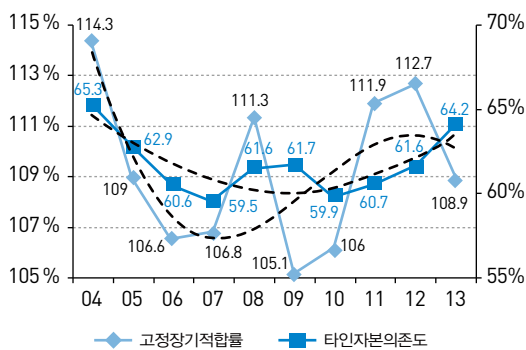


[그림 3] 성장성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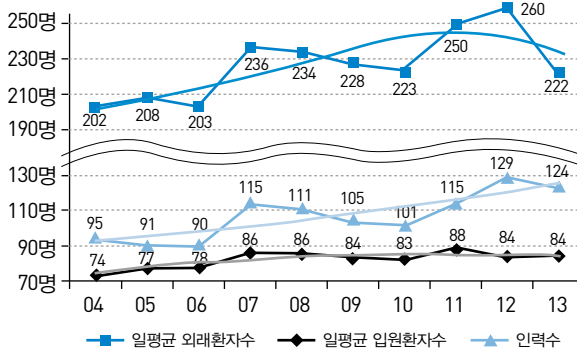


[그림 4] 수익성지표 추이

안정성 지표로서 타인자본의존도(부채비율)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추세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0.8%씩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도 타인자본의존도는 64.2%이다. 고정장기적합률은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2004년부터 연평균 0.5%씩 감소하는 추세로 2013년도에는 108.9%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환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당 일평균 입원환자수는 2004년 74명에서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10명 정도 증가한 약 84명이고, 100병상당 외래환자수는 2004년 202명에서 연평균 1.0%씩 증가하여 10년후인 2013년에는 20명 가량 증가한 약 222명이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인력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00병상당 인력수는 2004년 95명에서 연평균 3.0%씩 증가하여 10년 후 30명 정도 증가한 약 124명이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2명 보다 낮고, 인구 1,000명당 임상간호사수도 4.8명으로 OECD 평균인 9.3명 보다 낮아³⁾ 추후 100병상당 인력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안정성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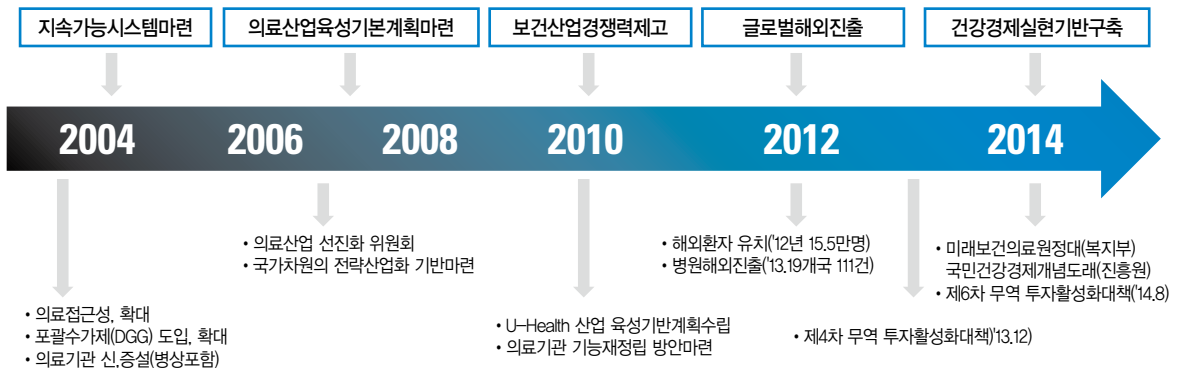


[그림 6] 환자수 및 인력수 추이(100병상당)

3) 보건복지부 외, 2014, "OECD Health Data"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정책동향 및 발전방향

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와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10년간의 국내 보건의료정책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에, 여기에서는 최근 10년간 추진된 주요 보건의료이슈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을 2006년으로 보고, 아래 <그림 7>과 같이 최근 10년간의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이슈를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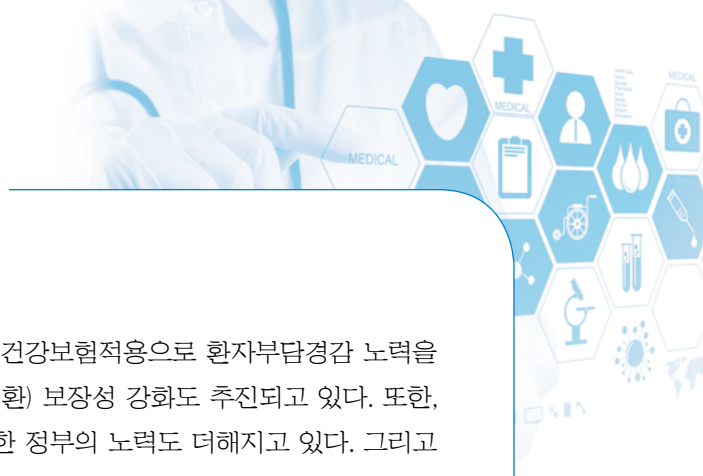


[그림 7] 최근 10년간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정책동향

첫째, 국내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2000~2006)에서는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눈에 띄는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최단기간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달성, 지속적인 의료보장성 강화정책과 함께 의료비를 적절하게 관리하였고, 주요건강지표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및 노인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는 ICT 융합산업 발전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변화의 흐름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둘째,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가차원의 아젠다(Agenda)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되어(2006)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2007~2012년 기간 동안에는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이다. 먼저 의료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기능재정립기본계획’을 수립·발표(11.3)하였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시행(12.4) 등이 발표되었다. 의료기관의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가 본격 추진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진료비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포괄수가제발전방안’을 마련 7개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추진하였다.



넷째, 2013년부터 최근까지를 정리해보면, 3대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적용으로 환자부담경감 노력을 이어가고 있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14년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더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래 신(新)성장동력 육성전략으로 해외환자유치 21만명 달성, 한국의료시스템의 중동국가로의 본격진출, 혁신형제약기업 육성 등 국가차원의 전략산업육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에 맞게 의료서비스산업의 구조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첫째,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둘째,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분화로 인한 의료기관 간 상호경쟁구조로 의료자원 사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사후 급성기 치료 위주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적정관리에 한계점이 있다. 셋째, 급성기 병상의 전반적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특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의료자원의 도·농간 불균형 분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10년의 국내 의료서비스산업 관련정책 및 동향을 종합해보면, 수요 측면에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질병구조 변화, 공급자 측면에서 자원불균형, 대도시 편중, 환자 쏠림 현상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 재정안정화 정책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많은 부분 노력을 경주하였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기본전략을 마련하였고, 국내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확대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의료서비스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료서비스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동인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최종 지향점으로 두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만성질환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치료중심의 의료시스템을 IT와 미래 의료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산업·경제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경제(Health Economy)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